

개교 및 준공식 식사



1대 김경식 교장선생님
(1981.2.3 ~ 1985.8.16)

첫 입학생을 맞아 들인지 벌써 두 달.

모란 향훈 짙어만 가는 5월의 주말에 우리의 숙원이던 본관 준공과 더불어 개교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기뻐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청년은 내일의 주인공이요, 청년 교육은 국가의 백년 앞을 설계하는 막중한 사업입니다.

더욱이 민주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우리의 현실은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영재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과 세심한 배려 아래 가장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환경을 갖춘 배움의 요람이 “웅지의 성취인, 성실한 사회인, 탐구적 지성인, 합리적 생활인”을 교훈으로 고고의 성을 올렸다는 것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이 고장의 기쁨은 물론이요 온 겨레의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상산 가족일동은 모악의 영봉을 비롯해 고장의 명산들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 상산의 품에서 그들이 웅비의 꿈을 안고 “사나이다운 사나이, 한국이다운 한국인, 학생다운 학생 그리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여 장차 사회의 햇불이 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 하나하나를 모두 사랑하며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어 반드시 값진 결실을 맺을 것이며 그들과 함께 영광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상산건아 여러분!

여러분은 상산 학원의 주인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앞에는 상산이 없었지만 내일의 여러분의 뒤에는 영원히 상산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땀 흘려 닦은 길을 여러분의 후배들이 지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질적인 생각이 하나의 목적으로 통일되고 매진할 수 있을 때, 나이, 환경의 차를 넘어서 상산을 구심점으로 하나의 상산, 통일된 상산을 이룰 수 있을 때 먼 훗날 여러분은 후배들에게 오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많이 된 도리를 다해 좋은 전통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를 밝히는 햇불이 되도록 임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학생 여러분 스스로 전력을 기울일 것을 맹세합니다. 상산을 구심점으로